

# 한국불교, 호주서 法輪을 굴리다

### 조계종, 23~30일 호주 시드니서 첫 방문 행사

최근 급속도로 불교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호주에 한국불교와 전통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 일원에서 한국 불교 세계화를 위한 호주 방문 행사를 진행했다.

그 시작은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전통등 점등식이 있었다. 8월 24일 시드니 현대미술박물관 광장(MCA)에서 펼쳐진 불교문화마당 전통등 점등식에는 코알라, 오페라하우스 등(燈) 등 이색적인 등도 함께 불을 밝혀 현지민들을 매료시켰다.

이날 점등식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사회부장 법공 스님, 문화사업담당장 정산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대행 미산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과 시드니 정법사 회주 기후 스님, 조문형 정법사 신도회장 등 참가했다.

시드니의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문화마당에는 첫날에만 200여 명의 현지인들이 인경체험, 단청그리기, 연꽃등 만들기 등 한국불교전통문화를 체험했다. 또한 총 6개 프로그램 중 4개 이상을 참여하는 경우 천으로 된 차밭 또는 일주돈 앞에서 즉석촬영사진을 상품으로 전달해 프로그램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에 앞서 중앙승가대 총장대행 미산 스님은 100여 명의 시드니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교, 내면의 평화를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통해 미산 스님은 한국 불교와 다양한 불교수행 방법, 한국

불교 특성에 대해 사진을 곁들여 간결하고 재미있게 소개해 청중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30분 동안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호주인들의 불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실제 한 20대 현지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동양의 희생정신과 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는 최근 나의 고민이기도 하다"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산스님은 "자기사랑과 상대에 대한 희생이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

### 24일 전통등 점등식 시작으로 사찰음식 · 템플스테이 등 소개 호주 종교계 · 정관계 인사 교류 세계화 위한 현지 법회 · 강연도

다"라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애를 충만히 하는 가운데서 상대에 대한 자비를 나누어 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답했다.

현지인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다. 지역 신문을 보고 강연에 참석할 불기리아 출신의 필리포라(여·30)씨는 "한국에 불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다양하고 긍정적인 강의내용이 인상적이었다"며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꼭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조계종의 한국불교세계화를 위한 현지



조계종 호주 방문단이 현지 스님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시드니 현대미술박물관 앞 한국불교문화마당에서 현지인들이 인경체험을 하고 있다.



대안 스님의 사찰음식 강연회는 서구적 식습관에 길들여진 호주인들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방문 사업은 뉴욕, 파리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호주 행사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강연회, 사찰음식 등을 현지 시드니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호주방문 행사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방문단이 26일 호주불교연합회 회장 수프야모 스님, 부회장 뽀야와로 스님 등 호주불교계 대표단과 만나 상호 교류에 대한 환담을 진행했으며 28일에는 세인트메리리대성당을 방문 대표자인 지오바니파커 신부를 만나 종교평화 및 종교간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NSW(New South Wales) 호주연방 환경부장관, 다문화장관, 호주의회 의원 등을 초대 사찰음식만찬을 나누고 한국전통 문화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도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UN참전용사 미망인 및 자녀들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현지 주민들을 위한 포교도 이어졌다. 조계종 방문단은 시드니 정법사에서 현지 법회를 봉행했으며, 정법사를 오세아니아 주 대표 사무소로 지정하고 헌판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신종일 기자

## “남북 상생 위해 자비희사 실천해야”

### 조계종, 8월 28일 프레센터서 한반도 평화 국제 포럼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를 기원하는 '한반도평화대회 국제포럼'이 조계종 주최로 8월 28일 서울 프레센터에서 열렸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불교의 평화사상을 통해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가능케 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동아시아에서 한국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으며 국내외 대학 석학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은 축사를 통해 "한민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역사의 명맥을 잇는 일에 함께 노력하자"며 "이번 포럼에서 평화의 역사를 새로이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의 불을 네 팔에서 채화해 화제가 되기도 했던 혜자 스님(도선사 주지)은 "제가 원력으로 평화의 길을 열고 있다면 학자 여러분들은 학문과 지성으로 그 길을 펼쳐 주셔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평화를 향한 마음

또한 송목 스님(조계종 포교원 부장)도 "남북이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안에서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민족이 생존하는 길"이라며 "불자들이 함께한다면 부처님의 지혜광명도 한반도에 가득해 평화정착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수불 스님(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 상임운영위원장?범어사 주지)은 "불교는 전쟁의 근원적 원인을 인간의 욕망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은 전쟁으로써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무지와 탐욕의 산물"이라며 "평화지향성이 강한 불교가 평화를 위한 관계 맺기의 실천윤리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희사에 있다"며 "증오는 자(慈)로써, 남을 해치는 욕구는 비(悲)로써 제거하고 더불어 기뻐(喜)하고 탐심을 버림(捨)으로써 남북화해와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포럼은 1부 불교 평화론과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2부 한국전쟁의 성찰과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배현진 기자

의 등불이 환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전 6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석, 동아시아평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 금강산관광재개본부 '서명운동' 돌입

### 10월 3일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이 펼쳐진다. 금강산관광재개법국민운동본부(공동 상임대표 자승 스님)는 8월 29일 서대문구 본부 사무실에서 회의를 갖고 10월 3일 강원도 고성에서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고 결의했다.

금강산관광재개법국민운동본부 이승환 운영위원장은 "다시 가자 금강산 행사는 작년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명 운동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9월 10일 회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10년 대적 불사 천태중증양박물관 개관 천태종(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충북 단양군 구인사 입구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불교천태중양 박물관 낙성법요식 및 개관식을 봉행했다. 박물관은 1만730㎡(3,246평)의 부지에 연면적 9,468㎡(2,864평)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소장 문화재는 1만 5000여 점이며, 이 중 151점이 상설 전시된다. 법요식에서 도용 중정 스님은 "실상의 참 세계는 한 모양도 없으나 가지가지 형상을 자제하게 나타내는구나. 모습 없는 모습을 보고 소리없는 소리를 들어라"고 법어를 내렸다. 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 조계종, 45기 사미 · 사미니 수계교육 입재

### 23일부터 16일간 직지사서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응)은 8월 23일 제8교구 직지사서 제45기 사미·사미니계 수계교육 고불식을 봉행하고 1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수계교육에는 남행자 99명, 여행자 37명 등 총 136명이 인선의 사표가 되고자 발원을 굳건히 했다.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혜명 스님은 입재사에서 "수계교육에서 배우고, 출가자의 살면서 늘 새롭게 배우고, 실천해야 할 과제는 발심과 원력"이라며 "부처님 생애에서, 다양한 수행에서,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며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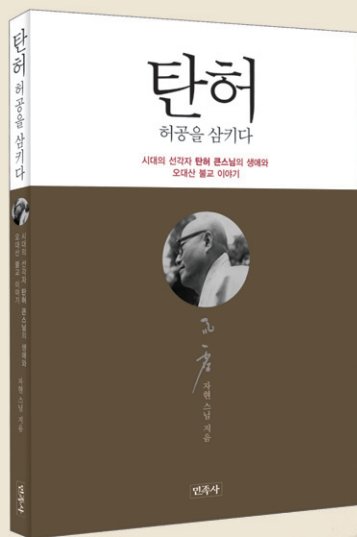
직지사 주지 흥성 스님은 "느리지만 우직한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마음을 강

조했다. 스님은 "출가의 길은 쉽지 않다. 긴호흡으로 꾸준히 가야 한다"며 "우보천리(우보천리)라 했다. 첫 마음으로 꾸준히 출가의 길을 간다면 세월 흘러 지금보다 나은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교육에 참가한 남녀행자들은 수계교육 유나 덕문 스님의 고불문을 마음에 새겼다. 덕문 스님은 "모든 중생들을 선지식으로 생각하고, 깨달음과 번뇌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지극하고 용맹한 정진을 하겠다"고 고불문을 낭독했다.

이번 수계교육 고불식은 이제까지 한문 중심 고불문과 서원문을 우리말 중심으로 바꿨다. 또 9월7일 열리는 수계식에 가족과 친지, 지인 등을 초청해 행자들의 사미?사미니계 수계를 축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씻기지 않는 이름 탄허, 그리고 탄허 스님을 품은 오대산 불교 이야기



“대한민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것” “법당 100채를 짓는 것보다 스님들을 공부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 세월이 흘러도 퇴색되지 않는 탄허 큰스님의 가르침!

《탄허, 허공을 삼키다》는 스님의 원력과 가르침, 업적을 되살려 미래의 꿈과 좌표로서 한국불교 발전의 바탕으로 삼을 수 있는 나침반과도 같은 책이다. 이 책은 스님의 생애와 시대정신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고,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도 소개하고 있어 탄허 스님이라는 큰 그릇을 품을 수 있었던 오대산의 문화적인 배경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탄허, 허공을 삼키다-시대의 선각자 탄허 큰스님의 생애와 오대산 불교 이야기  
저: 현 스님 지음 / 264쪽 / 13,500원 / 무선(신국판)

5월 17일 오전 11시 부처님 오신날 특집 다큐  
《탄허, 화엄의 길》 KBS1 TV 방영 예정



## 한국불교의 자존심 한암 큰스님

한암 스님은 27년간 동구불출하면서 수행에 임했으며, 재물에 철저히 승가화합과 대중화합에 투철한 올곧은 수행자였다. 자신의 몸을 던져 상원사를 수호하였으며, 좌탈입망으로 수행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 주었던 한국불교의 자존심이다. 이 책은 한암 스님의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여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일화록이다. 생전에 주석하셨던 오대산 일경사를 중심으로 수집한 스님의 행적과 자료, 한암 스님 회상에서 수행했던 스님과 재가자 25명의 인터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한암 스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리운 스승 한암스님-한국불교 25인의 증언록  
김광식 지음 / 412쪽 / 15,000원 / 양장(신국판)

### 구입 문의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동명 063-02-109450 (예금주: 윤재승)